"음악 들으며 곡에 얽힌 이야기 읽어보세요"

전남대 이태은 교수 '피아노, 피아니스트…' 출간 글렌 굴드 연주 등 담은 음반도

최근 클래식 관련 서적이 끊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정신과 의사 박종호의 '내가 사랑한 클래식'은 3편까지 나오며 베스트셀러가 됐고, 케이블 TV프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의 조윤범, '베토벤 바이러스'의 모델로 알려진 서희태 등도 클래식 에세이를 출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이태은 교수가 피아노 곡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쓴 '피아노, 피아니스트, 피아니즘-이태은 피아노 연주기'(효형출판 펴냄)를 출간, 눈길을 끈다.

이번 책에는 슈베르트, 베토벤, 드뷔시, 피아졸라 등 17명의 음악가가 작곡한 피아노곡이 담겼다. 모두 이 교수가 직접 연주했던 곡들이다.

"연주회 때마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았지만 곡마다 얽힌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랑받는 음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주자의 시각으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또 작곡가들의 대표작을 골라 음악사(史)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했구요."

자신이 연주했던 피아노곡과 작곡가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피아노, 피아니스트, 피아니즘'을 펴낸 이태은 전남대 교수가 연구실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책에 실린 원고는 우연찮은 기회에 효형출판사에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라는 원고를 보낸 후 전격적으로 출간이 결정되고 1년간 집중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다.

이 책의 매력 중 하나는 피아니스트가 직접 써내려간 피아노곡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곡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각 악장에서 느끼는 감흥 등이 담겨 '생생함'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너무 '전문적인 글'은 아니다. 피아노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이씨에게 많은 감명을 줬던 문학, 영화, 미술과 여행의 기록들이 곁들여져 책은 '한 피아니스트의 인문학적 레퍼토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씨의 글을 풍요롭게 한 것은 '여행'이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와 관련한 글은 스페인 여행에서 보았던 투우 경기와 플라멩코의 감흥과 어우러지면서 빛을 발한다. 여기에 스페인 출신 화가 고야의 그림까지 더해지면서 글이 풍성해졌다.

"지난해 연주회 때 도전했다 죽다 살아났지만, 힘들게 연습해 더 기억에 남는다"고 고백한 발라키레프의 '오리엔탈 환타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던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소나타 32번' 등은 한번쯤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곡이다.

책 부록으로 실린 음반도 눈길을 끈다.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골든베르그 협주곡' 등 최고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9곡의 음원을 음반회사 '낙소스'에서 구입해 만든 앨범이다. 또 책 말미에는 추천 CD 목록을 실었다.

올해는 이씨가 피아노와 인연을 맺은 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6살 꼬마 시절에 피아노를 접한후, 50여년간 피아노는 이교수에게 정복할 수 없는 '괴물'이자, 의지가 되는 '친구'였다.

"사실, 책을 쓴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쓸 자격이 있나 싶었는데, 올해로 피아노를 친 지 50년이 됐고, 계속 연주회를 해온 터라 이제는 그 느낌들을 적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고 한 두명이라도 피아노 음악에 귀 귀울인다면 좋겠네요."

이교수와 떼놓을 수 없는 게 대표를 맡고 있는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30여명의 피아니스트들이 4일 동안 특정 작곡가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주하며 공부하는 그룹으로 이번 책에 소개된 많은 연주회를 함께 해왔다. 4월 19일~22일 열리는 1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스페인·남미음악'을 소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 풍경

시립민속박물관 4월5일부터 1919~1970년대 사진 12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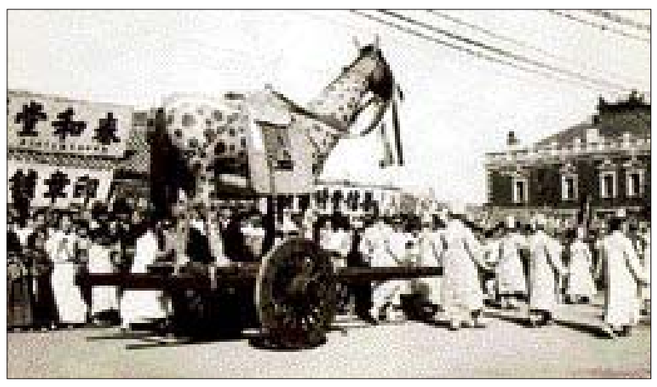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이병렬)은 오는 4월5일~5월9일 과거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남긴 사진 작품을 모은 '세 이방인의 서울회상'전을 연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1919년 서울에서 거주했던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 1947년 미군정 군인이었던 프레드 다익스(Fred W. Dykes), 1970년 청계천에서 각종 구호활동을 펼쳤던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씨가 촬영한 작품 120여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울의 다양한 풍경과 사라져가는 우리 일상 생활의 모습을 담아냈다.

광산개발업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테일러 씨는 UPA(UPI의 전신) 한국특파원으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졌다. 인왕산 서편 부근에서 남북으로 서울을 조망한 그의 파노라마 사진에는 서울성곽의 전체 윤곽 등 1920년대 말의 서울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앨버트 테일러의 '고종 장례행렬'

또 1919년 3월3일 고종장례행렬을 찍은 사진들은 당시의 분위기와 종로에 운집한 한국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희귀자료이다.

이 밖에도 다익스 씨는 1946년 12월부터 1948년 5월까지 미 7사단 보병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시내 곳곳을 관광하면서 당시의 모습을 촬영했고, 모토유키씨는 1970년대 초의 청계천 일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문의 062-613-533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 도자-마음과 정신을 담다

시립미술관 30일~4월25일 72명 30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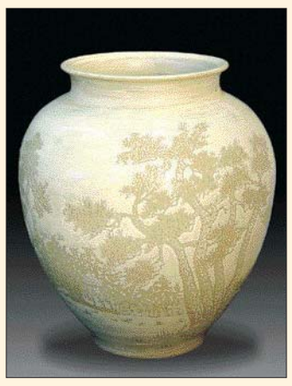
흙을 물에 버무려 빚은 뒤 불에 구워 만든 남도의 도자기는 하늘빛보다 투명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30일~4월25일까지 광주·전남 도예가 72명의 작품 300여점을 선보이는 '마음과 정신을 담다-남도도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광목, 강성곤, 김기찬, 김옥수, 김철우, 명재현, 박재연, 변정옥, 오향종, 위승연, 이경희, 이상목, 이학수, 조재호씨 등 이 지역 대표 도예가들이 참여해 환상적인 도자기의 빛과 선을 선사한다.

특히 전통의 빛과 기법을 따른 도자기와 현대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활도자기와 옹기 등 도예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작품을 전시, 도자기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 사발과 찻잔, 찻그릇 등 남도 차문화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차도구 등도 볼 만한 작품이다.



김옥수 작 '분청조화송림문호'

한편 오는 4월4일 오전 11시 이 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앞에서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도자체험,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613-7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왕재 궁중음악 타악 독주회

4월 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 '수제천' 등 연주

최근 들어 국악 공연이 많이 열리기는 하지만 정통 국악을 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객들과의 호흡을 위해 듣기 편한 곡을 선정하고,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는 4월 1일(오후 7시) 궁중음악으로 독주회를 여는 타악연주자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 혀악단 타악 수석)씨의 우직한 행보는 눈길이 간다. 이씨가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국악상설공연'에 초청받아 정악 장고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들려주는 연주 곡목은 한국 궁중음악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수제천'과 '관악영산회상'이다. 특히 '관악영산회상'은 광주에서 처음 연주되는 곡으로 국악 분야중 민속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 궁중음악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전남대 경제학과를 거쳐 국악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국악을 공부한 후 김청만·김규형·이태백씨 등을 사사했다. 전미향·박혜민·송선명·김혜정·김선제·김선임씨 등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350-45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학' 2010 봄호 출간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웅)의 계간지 '전남문학' 2010년 봄호(통권 72호)가 나왔다.

이번 봄호에는 특집으로 2010년 봄 신춘 좌담회 내용과 지난해 창립한 전남문학 출신 작가회(회장 김홍)의 활동계획과 비전을 담았다.

또 문인화가로, 시조시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춘자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들여다 보았다.

이밖에 회원들의 시, 시조, 수필, 아동문학 작품과 제8회 신인상 수상작품, 수상소감, 심사평 등도 실렸다.

이번 신인상은 시 부문에 김재희, 시조 부문에 변재섭, 수필부문에서는 박일훈, 윤운현씨가 수상했다.

한편, 전남문협은 오는 5월10일까지 제9회 전남문협 신인상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문의 062-363-995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